

고전 명작·90년대 화제작 스크린으로 만나다

전국 유일 단관극장 '개관 84주년 광주극장 영화제' 18일 열려 개막식 때 순간판 상판식...씨네토크·관객과의 만남 행사도

전국 유일의 단관극장, 광주극장 84돌을 기념하는 '개관 84주년 광주극장 영화제'가 18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광주극장과 광주시네마테크 공동주최로 6화제를 맞이한 이번 '광주극장 영화제'에서는 순간판 상판식, 씨네토크, 관객과의 만남(GV) 등 다양한 행사로 관객을 맞는다.

올해의 개막작은 김희정 감독의 네 번째 장편 '프랑스 여자'. 프랑스 국적의 여성 '미라'가 여러 사건을 통해 자신의 과거와 대면하는 판타지 드라마로, 최근 '롯데크리에이티브 공모전'에서 독립영화대상을 수상하고 전주국제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등에 초청상영됐다.

18일 오후 7시 10분부터 열리는 개막식 행사에서는 광주극장 전통의 '순간판 상판식'을 만나볼 수 있다. '마지막 간판쟁이' 박태국 화백의 지도로 15명의 관객들이 직접 그린 순간판을 올리는 행사다.

이번 영화제는 고전 명작부터 90년대 화제작, 국내 미개봉 신작까지 총 15편의 다양한 영화들을 만나볼 수 있다.

먼저 1980년대 이전 고전 영화로는 일본 영화계의 거장 오즈 야스지로의 '가을 햇살'(1960), 계급사회의 이면을 날카롭게 보여주는 조선 로지의 대표작 '하인'(1963), 1970년 당시 흔치 않은 소재인 여성의 위기를 다룬 작품 '원대'(1970) 등이 스크린에 오른다.

혁명기의 러시아를 배경으로 사랑에 대한 서사극을 그리는 데이비드 린의 '닥터

지바고'(1965), 은유와 상징으로 스페인 프랑코 독재를 비판한 빅토르 에리세의 '별집의 정령'(1973)도 상영된다.

8-90년대를 풍미한 화제의 영화들도 만나볼 수 있다. 오래된 영화관과 영화화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삶을 회상하는 이탈리아 영화 '스플렌도르'(1989)부터 메릴 스트립의 호연으로 인기를 끌었던 '아웃 오브 아프리카'(1985)와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1995)를 스크린에 올린다. 또 영화 감독 자크 트미의 유년 시절과 그의 작품들이 갖고 있는 매력을 탐구하는 아녜스 바르다의 '낭트의 자코'(1991)도 상영된다.

국내에서 아직 개봉되지 않은 신작들을 만나는 자리도 마련된다. 뮤지션 에릭 클랩튼의 굵직한 삶과 음악을 엮은 '에릭 클랩튼: 기타의 신'(2017)부터 '꽃 시리즈' 3부작으로 이름을 알린 박석영 감독의 '바람의 언덕'(2019), 한적한 동네의 늙은 개와 풍경을 담은 김보람 감독의 '개의 역사'(2017) 등이 상영된다. 다미양 마니벨과 이가라시 코헤이의 공동 연출작 '타카라, 내가 수영을 한 밤'(2017), 로카르노 영화제 황금표범상(대상)과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페드로 코스타의 신작 '비탈리나 바렐라'(2019)도 이번 영화제를 통해 소개된다.

한편 영화제 기간 동안 열리는 관객과의 대화(GV), 시네토크 등 부대행사도 눈길을 끈다. 19일 오후 4시 '바람의 언덕' 상영 후에는 박석영 감독과 배우 정은



'닥터 지바고'



'하인'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경, 장선, 김태희가 함께하는 GV 시간이 마련되며, 26일 오후 5시 '프랑스 여자' 상영 후에는 이세진 '바람의 언덕' PD의 진행으로 김희정 감독, 배우 김지영이 관객을 만난다.

24일 오후 7시 10분 '스플렌도르' 상영 후에는 '광주극장 그리고 극장의 추억'을 주제로 위경혜 극장문화연구자의 강연이

마련된다.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영화제 피날레 콘서트'가 열려 노르웨이 출신 '에스펜 에릭센 트리오'의 재즈 무대가 펼쳐진다.

관람료 성인 8000원, 청소년 7000원. 영화제 상영작 4편을 관람하면 1편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쿠폰북 이벤트도 진행된다. /유연체 기자 yjyou@kwangju.co.kr

자연과의 소통, 실존에 대한 자각

담양 출신 강대실 시인 '바람의 미아들' 펴내

"다 못 버린 알량한 양심의 가책 앞에서 시가 무슨 대수냐 싶어 문방 한쪽에 처박아 놓은 것들. 슬며시 끌어내곤 한 것은 너 때문에 간혹은 심미안이 비쩍 트이고 설레는 가슴으로 살 수 있어서이리."

담양 출신 강대실 시인이 네 번째 시집 '바람의 미아들'(시와 사람)을 펴냈다.

모두 70여 편의 시들은 자연과의 소통에서 존재와 실존에 대한 자각을 묻는다. 한편으로 끊임없이 자기 갱신을 위한 성장, 고향에의 인정과 향수, 생명성을 고양하는 시편들이 담겨 있다. 저마다의 시편들은 간결한 리듬 바탕 위에 향토성을 투사해 서정적 후미미음을 환기한다.

"자꾸만 달라붙는 보푸라기 생각들,/ 마음도 바람개비/ 가만히 못 있어/ 창밖 산비탈 대숲에 눈 돌린다.// 푸르른 대숲에 잔잔해진 내 안에/ 수다식구 삼시 세끼 녹록치 않아도/ 항상 집안 가득히 봄



별 불러다 놓고/ 동네 어귀 왕대밭 사들였던..."(대숲을 바라보며 중에서)

"대숲을 바라보며"는 고향의 풍경을 그림 그리듯 잔잔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화자는 과거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대숲의 풍광을 특유의 서정적인 어조로 풀어낸다.

강경호 시인은 해설에서 "한국시가 점점 일상에 함몰되어 유약하고 애소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시인 자신의 내면에 깃든 존재에 대한 인식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실존의 문제를 내밀하게 살피고 있기 때문이다"고 평한다.

한편 강 시인은 월간 한국시로 등단했으며 시집 '일새에게 꽃자리 내주고', '먼 산자락 바람꽃' 등을 펴냈다. 현재 광주문인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무등문화회 회장을 역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는 20일 오후 7시 광주 메이홀에서 '심야버스' 음악회를 여는 시인 임의진(오른쪽)과 가수 김현성.

아시아 문화, 지역성과 연계해 방향성 모색

2019아시아문화포럼, 18일 문화전당 국제회의실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다. 많은 학자들은 IT는 물론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연계로 아시아의 가능성을 전망한다.

그동안 아시아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논의해왔던 아시아문화포럼이 이번에는 지역성 담론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학술포럼을 개최해 눈길을 끈다. 기존의 서구의 시각으로 정립돼왔던 아시아의 정체성을 지역성과 연계해 재정립해야 한다는 자각의 발로다.

2019아시아문화포럼이 오는 1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리오리엔팅 아시아 문화, 현지성에서 지역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아시아문화정체성을 매개로

논의와 질의가 이어진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와 아시아문화전당이 공동주최하고 문화재단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아시아문화원이 공동주관한다.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뜻의 '리오리엔팅'은 지금 현재, 아시아의 문화를 성찰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방향성을 모색해가는 의미를 함의한다. 본격적인 포럼은 모두 4개 세션으로 구성돼 있다.

1세션(좌장 백원담)에서는 백원담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장의 '융적이는 아시아와 문화정치적 장소들', 모리 요시타카 도쿄예술대학 국제예술창조연구과 교수의 '이동성과 장소: 아시아의 대안적 공

간중식과 부상하는 초국적 정체 및 문화의식' 발제, 토론이 이어진다.

일부 아랍권 국가에서 여성이 착용하는 '히잡'을 모티브로 한 발제도 있다. 2세션(좌장 김희정)에서는 김형준 강원대 교수의 '패션으로서의 히잡: 현지성과 지역성 사이에서', 장률 영화감독의 '시간의 흔적'이 펼쳐진다.

3세션과 4세션은 동아시아문화도시 특별 세션으로 별도 진행된다.

3세션(좌장 이동연)에서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평화는 풀하게, 음악은 합하게'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이용주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대학 학생의 '리오리엔팅시대, 전통사상의해석', 디아나 싸기예바 카자흐스탄 유티버의 '크리에이티브 아시아'가 예정돼 있다.

4세션(좌장 황병하)에서는 '아시아 전통예술형태에서의 치유적 기능 고찰 및 사례 연구'(리서치팀 1), '전지구화의 양면성과 아시아 예술'(리서치팀 2), '음악여행의 원리를 적용한 예술공간 연구'(리서치팀 3)가 예정돼 있다.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과 연계한 특별세션에서는 '골목'을 중심으로 다룬다. '공간과 커뮤니티, 골목의 재발견'을 주제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문화공간 골목을 이야기한다.

박선욱 행복도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권순택 청주지역재생활성화협동조합 이사장, 김희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획담당자의 사례발표가 진행된다. 외국에서는 중국 황하오정 취안저우 해상교통사박물관 홍보교육부 부주임, 미나리 나미코 니혼조시대대 주거학과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시인 임의진·가수 김현성 '심야버스' 음악회

20일 광주메이홀

'이등병의 편지', '가을 우체국 앞에서'를 작곡·작사한 가수 김현성과 시 '마중물'을 쓰고 음반 '여행자의 노래' 시리즈를 출판한 시인 임의진. 두 사람이 개최하는 음악회가 20일 오후 7시 광주메이홀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은 김현성·임의진의 콜라보 음반 '심야버스' 발매를 기념하는 음악회다. 앨범에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마중물' 등 임의진의 시에 김현성이 곡을 붙인 11개 곡이 수록됐다.

이날 공연에서는 '개털, 엄마 없는 별에

서' 등 앨범 수록곡과 함께 고두현의 '빈자리', 객재구의 '사평역에서' 등 시를 바탕으로 쓴 곡들이 무대에 오른다. '이등병의 편지',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등 김현성의 대표곡과 '솔베이지의 노래' 등 번안곡도 만나볼 수 있다.

또 임 시인과 음악작업을 함께 해 온 대전 기연사 주지인 우성 스님도 출연해 함께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입장권 2만 원. 음반 '심야버스'가 포함된 가격이며, 표는 현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유연체 기자 yjyou@kwangju.co.kr

작은만큼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해동공인중개사부동산컨설팅

나주시 산포면 468-4 산포자동차공업사 앞
토지·임야·주택·아파트·땅
각종부동산 매매 상담
☎ 061-337-8244, 010-3626-9040

OK 당구장

동구 대인동 220 대인농협옆 (가오무대 지하)
포켓대 당구대설치, 최신시설완비
냉·난방 완비 친절, 신용 본위
☎ 010-8005-0188

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족공예 수업 및 주문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 010-3906-1718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주)로만손시계 (주)오리엔트시계

동구 호남동 13-3
금, 은, 고급시계 상담대환영!!
광주, 전남 대리점 A/S센터
☎062)232-0038, 010-2290-0038

완도전북

나주시 나주로 131 (나주신협옆)
산지 직송 도소매
전국택배가능
☎010-2831-9257

태극익스프레스

동구 계림동 519-36(구.계림시장동)
포장이사, 일반이사, 피아노 인부대기
각종 화물 바구니 무료
친절, 신용, 본위
☎062)222-2424, 011-664-2202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 062)263-2223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관·양관)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

광주갤러리경매장

동구 대인동 동부서후문앞 철충동빌 1층
수석, 동양화, 서양화, 민속품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2시부터
☎ 010-6778-9330

학산운명감정원

동구 대인동 고운하이츠 오피스텔 302호
사주, 작명, 개명, 궁합, 신수, 택일
사업, 시험, 진급, 결혼, 중매 (경력33년)
원장 전홍석 ☎ 010-8003-9000

그집고기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신협 뒤)
편·돼지고기 전문·달걀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고전방

동구 궁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사주·운세·궁합·택일
시험·승진·사업·재물·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청강창호

북구 청계로 67(용봉동)
현대하이사시 + 피엔에고사시
제작설치전문
☎062)528-7711, 010-3612-9794

초대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궁동 54-2)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박당화랑

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클로버부동산

북구 필문대로11번길 6 (동향동)
모든 부동산 사고 팝니다.
임야, 전답, 토지, 상가건물
재건축·재개발 매매·임대
☎ 010-5707-6676